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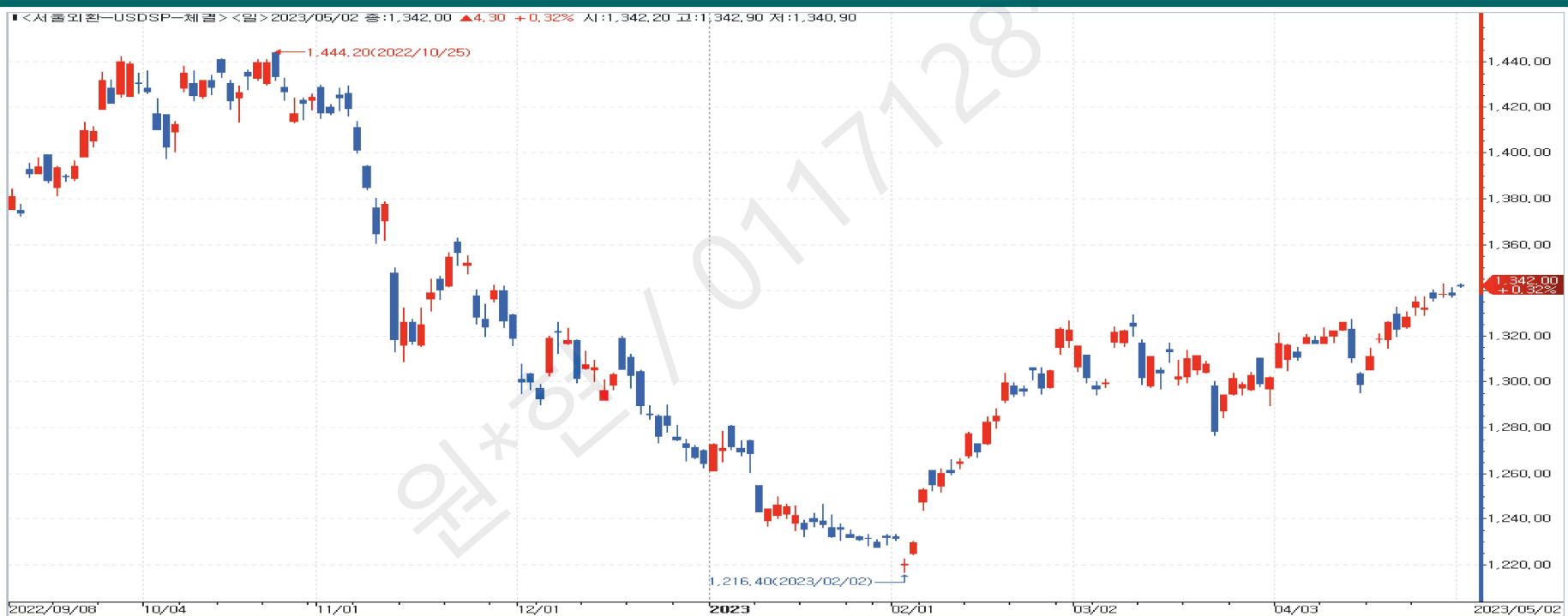
자금시장영업부

2023. 5. 2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4/24~4/28)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경기침체 우려에도 미 4월 PMI 개선에 따른 Fed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영향 반영하며 상승 출발. 이어 중국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안화 약세 반영하며 상승 흐름 이어갔으나 외환당국 구두개입과 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실행 소식에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 은행 불안과 부채한도 이슈에 따른 위험회피 강화 속에 재차 상승 후 수급에 의한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의 영향 반영하며 상승폭 다소 제한
- 후반 들어, 금융 불안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재차 확대되었으나 중국증시 반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소폭 상승. 이어 주 후반,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결정에 따른 엔화 약세 반영하며 상승했으나 1340원대에서 외환당국 경계 심리에 소폭 하락 마감

## 달러/원 전망

- 5월 FOMC에서의 베이비스텝 금리 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긴축에 대한 연준의 방향성 신호에 따라 달러화도 확연한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상존한 국면
-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JP모건 인수 속에 PCE물가의 하락 경로가 이어지는 측면이 연준의 성장 위험으로의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부각되는 관점에서 금번 베이비스텝 금리 인상을 끝으로 금리 동결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양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점이 FOMC 이전 환율 변동성을 높일 요인
- 여기에 대내적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 이어지는 국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으로 보이거나 적자 규모 축소 흐름이라는 점이 다소 상방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32.5	1,342.9	1,328.5	1,337.7	+5.2

## 예상거래범위

1,325원 ~ 1,34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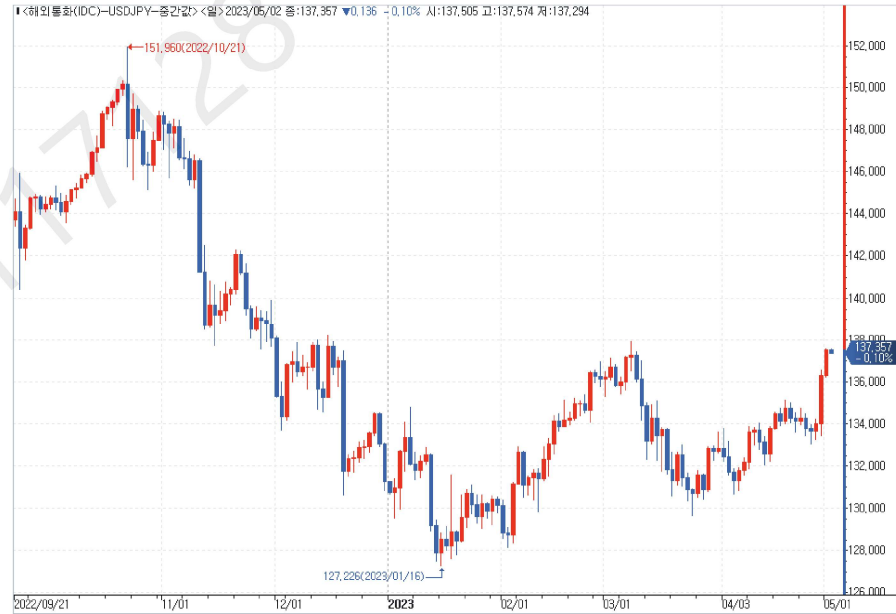
# 엔·유로화 동향 (4/24~4/28)



유로화 동향

- 주초, 미 부채한도 이슈 등에 달러 약세 흐름 보이는 가운데 독일 4월 Ifo 경기현황지수 상승에 ECB의 빅스텝 가능성 제기되면서 유로 강세. 이어 은행 리스크에 유동성 축소 우려 지속되며 미 경기침체 가능성 확대되자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강화된 영향 반영하며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독일 5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에 독일 경제성장률이 0.4%로 상향 조정된 영향으로 ECB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되며 상승
- 후반 들어, 미 1분기 GDP가 1.1%로 큰 폭 하락하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우려 나타났음에도 연준의 추가 긴축 예상되면서 소폭 하락. 이어 주 후반, 유로존 1분기 GDP가 1.3%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ECB의 매파 스탠스가 다소 완화될 기대감에 약세 흐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989	1.1096	1.0992	1.1016	+0.0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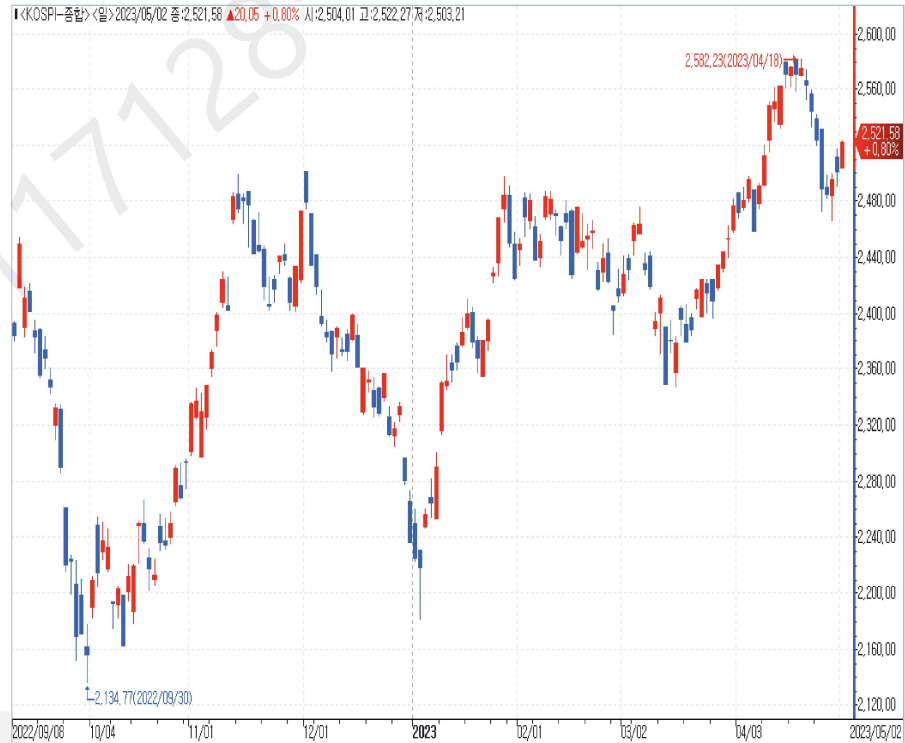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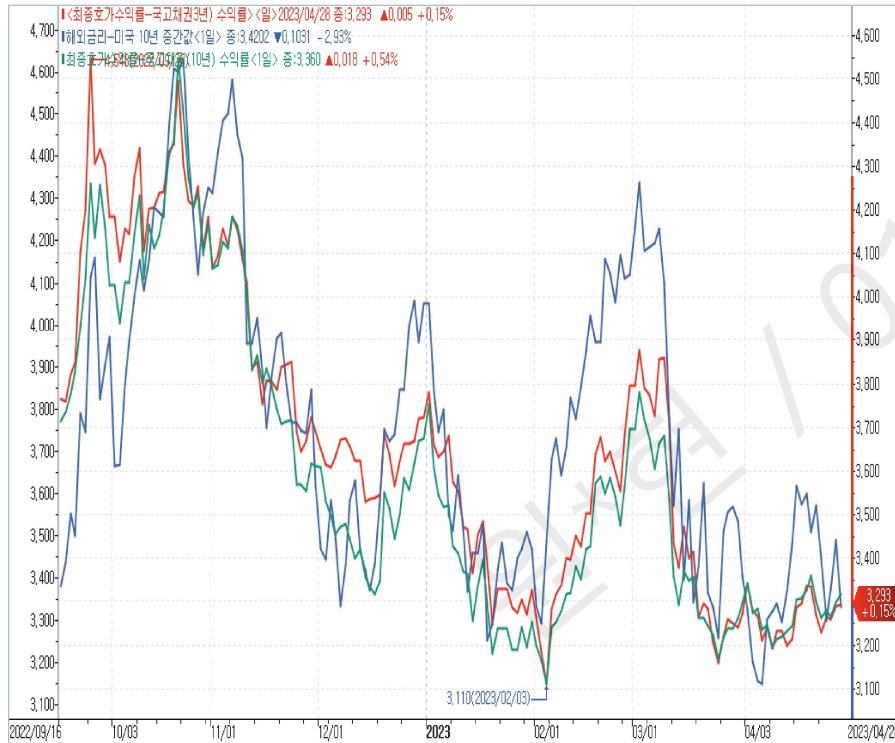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계획 시사하면서 연준 통화정책과의 차이 확대 예상에 약세 출발. 이어 미 지역은행 관련 금융 불안 확산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 증가 등으로 강세 흐름 전환
- 중반, 은행 부문 유동성 축소 우려와 부채한도 상향 갈등에 위험회피 심리 강화되었으나 미국채 수익률 혼조세에 따른 엔캐리수요 영향 등이 강세 흐름 제한하며 소폭 하락
- 후반 들어, BOJ가 비둘기 스탠스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 대한 경계감에 약세 전환. 이어 주 후반, BOJ가 완화적 금융정책 유지 결정 후 상당 기간 완화적 기조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율은 큰 폭 상승 후 약세 흐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4.1	136.6	133.0	136.3	+2.2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4/24~4/28)



##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초, 미 제조업 PMI 지표 등의 견조함을 반영한 미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 후, 아시아 시장의 미국채금리 하락을 반영한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강화에 하락 전환. 이어 국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의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 가운데 추가 이슈 부재 속에 소폭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банкрот에 따른 주가 폭락 요인이 미 은행시스템 우려를 높이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반영되며 재차 소폭 하락. 후반 들어, 수급상 국고채 발행 계획과 BOI 금융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 확대된 가운데 소폭 상승 흐름을 나타낸 후, 주 후반, 미 PCE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4.2% 상승을 시현하며 시장 예상을 하회했으나, 여전히 목표와의 차이가 높다는 점 등에 따른 물가 우려 영향 등이 반영되며 상승세 이어진 후, BOI의 기존 정책 동결 결정 등을 확인하며 소폭 상승세 되돌림되며 마감

##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본격 기업 실적 시즌 시작 속에 5월FOMC에 대한 경계감과 PCE등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며 하락 출발. 이어 전일 일부 종목 급락장세가 이어지며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2차 전지 위주 주가 조정 양상도 지수 하락에 영향
- 중반 들어, 미 퍼스트리퍼블릭 은행발 리스크 부각 등으로 재차 코스피 지수는 하락 국면을 이어갔으나, 미국 경제지표가 가소 흔재 국면을 보인 가운데 소폭 반등 흐름을 보인 양상
- 후반 들어, 전일 뉴욕증시 기술주 호실적 발표 등에 따른 영향이 국내 증시 호재로 작용한 가운데 당국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함 영향도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 이어 주 후반, 국내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개선된 가운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이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마감